

“검·경 수사권 조정안, 민주적 원칙 어긋나”

문무일 검찰총장 “수사 담당 어떠한 기관에도 통제받지 않는 권한 확대되어서는 안돼” 강조

문무일 검찰총장이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상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문 총장은 대검찰청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국회에서 신속 처리법안으로 지정된 법안들은 형사 사법체계의 민주적 원칙에 어긋나며, 기본권 보호에 반듯이 생길 우려가 있다”고 16일 밝혔다.

문 총장은 “수사는 진실을 밝히는

수단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의 기본권을 합법적으로 침해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며 “수사를 담당하는 어떠한 기관에도 통제받지 않는 권한이 확대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형사사법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민주적 원칙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따르면 경찰은 혐의를 확인한 사건만 검찰에 송치하고 자체 수사중경을 할 수 있다.

또한, 검찰은 경찰에 수사 지휘를 할 수 없다. 다만 경찰 수사에 법 위반이나 인권 침해, 수사권 남용 등 문제가 있으면 검사가 시정조치와 사건 송치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문 총장은 “어느 한 기관이나 개인도 형사 사법 절차에서 전권을 행사해서는 안된다”며 “수사 착수를 하는 기관은 결론을 내리선 안되고, 결론을 내리는 기관은 착수를 해선 안되는 것이 형사 사법 절차에 민주적 원리다”며 비판했다.

문 총장은 지난 1일 해외 순방 중 ‘수사권 조정 법안이 민주적 원리에 위배된다’며 반대 입장을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강석훈 기자

‘연 이율 1만8250%’ 불법 사채받은 청소년 감금

경찰, 불법 대부업자들 구속 ‘담보 없이 즉시 대출’ 내걸어 피해자들에게 ‘폭탄 이자’ 두루뭉술 설명 고금리 적용 약속 날짜 갖지 못한 이유로 등교하던 중 붙잡아 감금

미성년자를 상대로 연 이율 1만 8250%에 달하는 고금리로 돈을 빌려주고 피해자들을 협박·감금한 불법 대부업자들이 체포됐다.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조폭 A모(21)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또 범행에 가담한 B모(20)씨 등 4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9월까지 4개월 동안 미성년자 9명을 포함한 31명에게 1억여원을 빌려주고 연 이율 1만8250%적용해 2천여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담보 없이 즉시 대출’이라는 문구를 내걸고 대부업체를 홍보했고, 전화를 걸은 피해자들에게 ‘폭탄 이자’에 대해 두루뭉술하게 설명한 뒤 고금리를 적용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들은 약속 날짜에 돈을 갖지

못하면 이자율을 대폭 올리고 감금과 협박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 피해 학생은 200만원을 빌린 뒤, 원금을 포함한 600만원을 변제했지만, 약속 날짜에 돈을 갖지 못했다는 이유로 등교하던 중 붙잡혀 차량에 감금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청소년들이 채무 독촉에 시달린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피해자 조사를 벌인 뒤 A씨 등을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미성년자를 상대로 고금리 사채가 벌어지고 있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며 “피해가 확산하지 않도록 유사 범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강석훈 기자

이번 경기 목표는 ‘선두군히기’

전주시민축구단, 18일 울산시민축구단과 ‘격돌’

전주시민축구단이 울산을 상대로 선두군히기에 나선다.

전북 유일 실업축구단인 전주시민축구단이 오는 18일 오후 3시 전주대 운동장에서 울산시민축구단과 K3리그(BASIC) 7라운드 홈 경기를 갖는다고 밝혔다.

전주는 승점 16(5승 1무)점으로 승점 동률을 이루고 있는 울산시민축구단을 상대로 반드시 승리해 리그 무패와 함께 선두 경쟁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하겠다는 각오다.

특히 이날 경기는 리그 최다득점(27득점) 1위 전주와 리그 실점(4실점) 2위 울산과의 창과 방패의 맞대결로 많은 팬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주는 6골로 개인득점 1위를 달리고 있는 오태환과 김상민(5

골), 서정호(4골), 홍용성(3골), 김희성(3골) 등 가용 선수를 총동원해 울산을 경기 초반부터 압도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날 공격에서는 오태환과 김희성, 서정호가 상대 골문을 향해 막강 화력을 선보일 계획이다.

중원에는 문문수와 이윤승, 박주성이 상대의 공격을 차단하고 공격에 활력을 넣을 전망이다.

또한 이인호와 임영욱, 지병우, 신근식이 상대의 공격을 차단하고, 조대영이 골문을 지키다.

양영철 감독은 “전주시민축구단은 현재 5승 1무로 무패를 기록하면서 팀 분위기도 매우 좋다”면서, “홈경기인 만큼 막강화력으로 승리를 거두고 경기장을 찾는 관중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경기에 열중하고 있는 전주시민축구단.

예비군훈련장 인근 도로포장

수십 년 동안 비포장 구간으로 남아 있던 전주시 송천동 예비군훈련장 인근 도로가 포장되면서 3만 명이 거주하는 예코시티 가는 길이 편리해졌다.

전주시 덕진구는 오랜 기간 비포장 구간으로 남아있던 동부대로에서 한라비탈도로 이어지는 예비군훈련장 인근 구간(덕진구 송천동1가 38번지 일원) 380m 중 사유지 120m 구간에 대한 포장 공사를 완료했다고 16일 밝혔다.

해당구간은 도로가 포장되지 않아 먼지 발생이 심하고, 우기 시 패인부분에 물이 고이는 등 주민들이 통행에 불편을 호소해왔던 곳이다.

뿐만 아니라 인근 예코시티 공동주택에 내린까지 약 7,600세대가 입주할 경우 차량 통행이 많은 동부대로 교통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도로포장이 절실했던 구간이다.

이에 덕진구는 토지주에 대한 꾸준한 설득을 거쳐 토지사용승낙을 받아냈으며, 총 2000만원을 투입해 도로포장을 완료했다.

시는 이번 도로 포장으로 인해 예코시티로 향하는 동부대로 교통정체를 일부 해소하고 학생들에게도 편리한 통학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송효철 기자

여름철 배달음식 위생점검

완산구(구청장 최락기)가 배달음식업소에 대해 특별 위생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한 배달업(배달의 민족, 요기요, 배달통 등)등록 음식점 300여개 업소를 대상으로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펼쳐진다.

주요 점검사항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여부 ▲무허가(무신고)원료 사용 여부 ▲조리종사자 위생 청결 관리 상태 및 건강진단 실시 여부 등 전반적인 위생 상태다.

점검에서 적발된 가벼운 사안은 현장 계도하되 중대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송효철 기자



전력질주

제13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가 한창인 16일 육상 남자 200M 중학생 T44 결승전에 참가한 김동선(대구) 선수가 결승선을 향해 질주하고 있다.

‘산뜻·쾌적’ 삼천 산책길

전주시, 이용객 편의 위해 노후화 천변 화장실 교체

전주시가 효천지구 입주민 등 삼천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 노후화된 천변 화장실을 교체하기로 했다.

전주시 맑은물사업본부(본부장 강승권)는 여름철을 앞두고 삼천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보다 깨끗하고 편하게 산책을 즐길 수 있도록 노후화된 화장실 교체 등 하천 환경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특히, 시는 삼천가입장 앞에 설치한 지 10년이 경과하면서 이용하기 불편

한 화장실을 산뜻한 디자인으로 설계된 이동식 건물형 화장실로 교체할 계획이다.

또, 여성 화장실 변기수를 늘려 여성 산책객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기로 했다.

동시에, 시는 가입장 내 데크 등 파손된 시설을 보수하고 이용객의 안전을 위한 불라드를 설치하는 등 환경 개선 정비사업도 함께 실시하기로 했다.

/송효철 기자

티에스케이위터, 천만그루 정원도시 조성 동참

전주환경사업소 관리운영사인 (주)티에스케이위터가 천만그루 정원도시 만들기에 동참했다.

전주시는 16일 전주시장실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이문드 (주)티에스케이위터 대표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천만그루 정원도시 전주’ 프로젝트의 범시민 참여 확산을 위한 시민나무 헌수 성금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천만그루 정원도시 전주’는 전주를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도시, 아름다운 도시로 만들기 위한 김승수 전주시장의 민선7기 첫 결재사업이다.

이 자리에서 이문드 대표이사는 전주시에서 시민나무 헌수 성금으로 1000만원을 기탁했다.

이 업체는 또 향후 매년 상·하반기에 각각 1000만원씩 연간 2000만원의 시민나무 헌수에 동참하는 등 천만그루 정원도시 전주 만들기에 앞장설 계획이다.

이와 관련, 시는 미세먼지와 열섬현상으로부터 안전한 전주를 만들기 위한 천만그루 정원도시 전주 프로젝트에 대한 시민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시민참여 헌수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시민나무 헌수에 동참을 원하는 시민은 푸른전주운동본부 홈페이지(www.greenjeonju.co.kr)를 통해 신청하

거나, 전화(063-285-0515)로 문의하면 된다.

이문드 대표이사는 “천만그루 정원도시 사업을 통해 전주가 열섬현상과 미세먼지가 줄어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후원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매년 2,000만원씩 전주시에 후원해 기부문화를 선도하고 전주시 행정에 도움이 되겠다”고 말했다.

김대현 전주시 천만그루나무심기단은 “전주의 청정 환경 조성을 위해 힘써주시는 (주)티에스케이위터에서 천만그루 나무심기 운동의 참여를 아시고 이렇게 참여를 해주시니 정말 감사하고 힘이 된다”며, “보내주시 마음 소중히 새겨 천만그루 정원도시 전주를 함께 만들어 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주)티에스케이위터는 경기도 성남시에 본사를 둔 국내 최대 종합환경기업으로, 수자원·폐자원에너지·자원순환 등의 분야에서 전국 827개의 환경기초시설을 관리운영하고 있다. 이 업체는 지난 2004년부터 40만3000톤 규모의 전주환경사업소 관리 운영을 대행하며 전주의 청정 환경 조성과 전주천 수질 개선을 위해 힘쓰고 있다.

/송효철 기자

도서관 상호대차 서비스 전주시, ‘음書감書’ 개선

19-20일 상호대차 신청 불가

전주시가 멀리 떨어진 도서관에 소장중인 도서를 가까운 시립도서관이나 공립작은도서관에서 빌려볼 수 있는 도서배달 서비스를 개선기로 했다.

전주시립도서관은 도서관 상호대차 서비스인 ‘음書(서)감書(서)’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시스템 개선작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시스템 개선 작업은 책이름 지역센터 서버와 전주시 도서시스템 간의 장애발생과 트래픽을 최소화하고 성능을 향상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시스템 개선으로 인해 오는 19일 오후 10시부터 도서관 휴관일인 20일 오후 10시까지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한 도서관서비스 및 상호대차 신청이 불가능하다. 이는 도서관 상호대차 시스템 업데이트 및 패치 등 프로그램 수정작업 기간이 하루정도 소요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전주시민들은 도서관 상호대차 시스템인 ‘음書감書’ 서비스를 이용하면 평소 자신이 이용하는 도서관에 원하는 도서가 없을 경우 다른 시립도서관에 소장중인 도서를 책배달 서비스를 통해 대출 또는 반납할 수 있다.

/송효철 기자

‘아름다운 예술시장’ 18일 운영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이 3년째 격월로 운영하고 있는 ‘아름다운 예술시장’이 오는 18일 추가로 전주고속버스터미널 문화마당에서 운영될 예정이다.

이날 행사는 전라북도 관광기념품 100선 전시와 다양한 공예품 판매를 통해 전라북도의 아름다운 예술작품을 만날 수 있다.

또한, 재단은 지난 2일 (사)한국공예문화협회, 금호고속(주)전주터미널과 ‘아름다운 예술시장을 통한 전북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재단에 따르면, 이번 업무협약은 전라북도 문화관광과 교통체널 간 컨소시엄으로 서로의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고 전라북도 관광발전, 관광여건 조성, 문화예술 활성화에 기여하게 된다.

한편, 2019 ‘아름다운 예술시장’은 2월부터 12월까지 격월 셋째 주 토요일에 진행된다.

/송효철 기자

여직원 추행 전 익산시 공무원

2심서 벌금 500만원 선고

부하 여직원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익산시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A모(59)씨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4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익산시청 사무실에서 여직원의 어깨를 주무르고 이마와 귓볼을 만지는 등 여러 차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으로 A씨는 해임됐다.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자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시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보인다”며 원심 파기 사유를 밝혔다.

/강석훈 기자

편의점 동파이프 훔친 50대 검거

편의점 창고에 들어가 동파이프를 훔친 50대 경찰에 붙잡혔다.

완산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A모(5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오전 8시 37분경 전주시에 한 편의점 창고에 들어가 시가 30만원 상당의 동파이프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업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통해 A씨를 검거했다.

/강석훈 기자